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에 대한 임상적 연구

김지연, 김병욱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대부분의 경우, 유치틀 계승하여 영구치가 맹출하지만,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영구치의 이소성 맹출과 매복은 종종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매복된 치아를 외과적으로 노출시켜 나머지 치아를 고정원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치주 외과적 술식과 교정적 이동 기전은 치아의 종류와 맹출한 나머지 치아들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시 각화치은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Gingivectomy, Flap operation, Closed eruption technique 등이 있다. 치아에 각화치은이 없는 상황에서 교정적 이동이 시작되면 심미성과 지각과민, 구강 청결을 어렵게 하는 치은 퇴축을 초래하기 쉽고 치아 우식증을 유발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그러므로 light surgical exposure와 light orthodontic movement & forces를 함께 사용하여 치아를 이동시키는 동안 치조골 지지소실과 잠재적인 치아손상을 최소화 시켜서 치아와 인접 치주조직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는 Apically positioned flap과 Closed eruption technique를 이용한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로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